

# 흐름 포착! 호텔이 움직인다

## 베이커리 진출 업체 수면 위로 부상

일부 호텔이 호텔사업으로 다져온 서비스,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베이커리 및 베이커리 인접 업종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기를 맞고 있는 베이커리 시장의 판도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호텔업계의 베이커리 사업 진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다.

□ 글/ 손인수

대형 할인점, 백화점이 전국 요지에 속속 입점하면서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점포에 할인 베이커리, 인스��어 베이커리 등이 들어서면서 베이커리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독립 점포 위주의 기존 베이커리업계에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호텔업계도 포함된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베이커리 및 베이커리 인접 업종에 진출했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은 호텔사업으로 다져온 서비스,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어 신규 사업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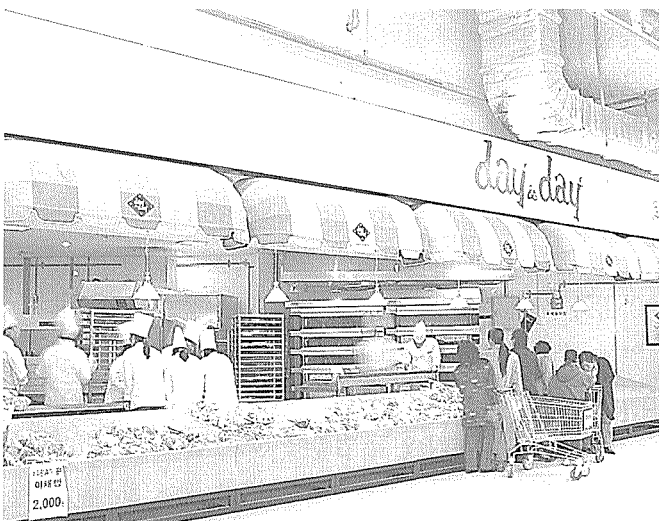
### 신라호텔 '봉마뽕' 제과점 오픈 주목

현재 베이커리사업에 진출한 호텔로는 조선히otel, 올림피아호텔이 있고 신라호텔, 하얏트호텔은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쿠키전문점, 시너먼롤 전문점 등 베이커리 인접 업종에는 아미가호텔과 청우호텔이 각각 진출해 있다.

호텔업계의 베이커리 사업 진출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끄는 업체가 신라호텔이다. 신라호텔은 오는 9월 4일 삼성물산 할인점인 '홈플러스' 대구점 개설과 동시에 이 매장 안에 '봉마뽕'이라는 브랜드로 제과점을 오픈한다. 봉마뽕은 50여 가지의 제품을 갖추고 할인점 인스��어 베이커리의 특성을 감안,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라호텔 사업개발팀 강봉수 과장은 "제품 수준은 호텔 수준으로 맞추되 가격은 할인 베이커리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봉마뽕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개설될 홈플러스 매장에 인스��어 베이커리로 들어설 예정인데 삼성물산은 홈플러스 매장을 오는 2010년까지 서울, 부산, 수원, 시흥, 울산, 창원 등지에 6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신라호텔은 홈플러스 매장 중심의 점포 개설과 함께 오는 99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호텔이 신라명과 맺은 약정이 99년 6월로 종료되고 이에 따라 신라호텔이 베이커리 사업을 위한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약정에는 신라명과 태동의 모태인 신라호텔이 99년 6월까지 신규 베이커리 사업 진출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난해 11월 28일 E마트 분당점에 입점한 조선히otel의 '데이앤데이'. 주로 E마트 내에 입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홈플러스 매장의 붐마뽕 오픈은 삼성그룹과 같은 계열사인 삼성물산의 유통점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양사가 양해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1월 28일 오픈 예정인 삼성플라자(구 동방플라자)의 지하 식당가에는 신라호텔의 기술, 인력 지원으로 복합매장인 '로댕'이 오픈한다. 이 점포는 붐마뽕과 달리 삼성물산이 사업주체이며 총 49평 규모로 카페와 베이커리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호텔업계 중 가장 먼저 제과부를 설립, 호텔 베이커리를 선도해 온 조선포텔은 지난해 11월 30일 분당 E마트에 '데이앤데이' 제과점을 오픈함으로써 베이커리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안양 E마트에 2호점을 오픈했고 오는 11월경 인천 E마트에 3호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데이앤데이에 대해 조선포텔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분당 E마트점의 경우 평일 350만원, 주말 600~7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데이앤데이의 제품구성 방향을 놓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호텔 베이커리의 아이টে็ม으로 접근하려다가 인접 장소가 할인점이라는 것을 고려, 대중적인 아이টে็ม으로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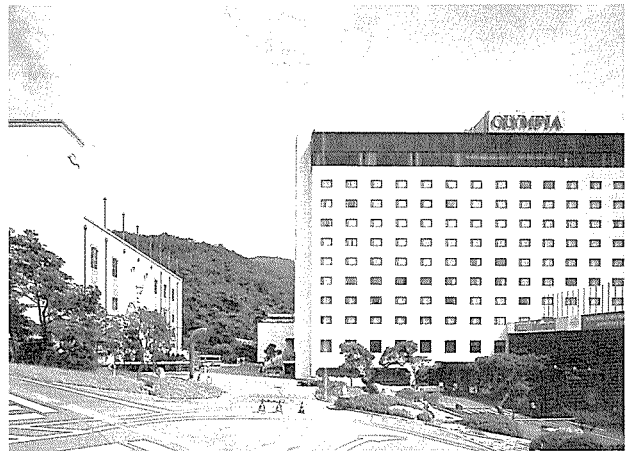


신라호텔은 삼성물산의 할인유통점 '홈플러스'에 '붐마뽕'이라는 브랜드로 입점한다.

### 올림피아호텔 10월 첫 점포 ... 하얏트는 지연

조선포텔과 신라호텔이 독자 브랜드에 의한 인스��어 베이커리 개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올림피아호텔은 외국 베이커리 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베이커리 사업에 진출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프랑스 유명 베이커리업체인 달로와



올림피아호텔은 오는 10월 호텔 내에 '달로와' 첫 점포를 오픈한다.

와 기술제휴를 체결하고 그해 10월 베이커리사업을 확장할 법인으로 태왕 베이커리를 설립했다. 그 이후 약 1년 가까이 점포 개설을 준비해 온 이 업체는 오는 10월경 자사 호텔과 호텔 옆 올림피아 갤러리(쇼핑몰)에 2개의 '달로와' 제과점을 동시 오픈한다. 호텔내 매장은 기존 베이커리를 개편하게 되며 올림피아 갤러리 매장은 살롱형 점포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업체 이기성 과장은 "프랑스에서 들여오는 설비의 통관이 늦어져 오픈이 지연되고 있다"며 "우선 2개 점포의 생산 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부터 영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림피아호텔은 달로와와의 계약에 따라 오는 2천년까지 5개의 직영점을 개설하고 이후 가맹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렇듯 호텔업계의 베이커리 사업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하얏트호텔도 이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업체는 올초 경영개발추진팀을 구성하고 베이커리를 포함한 사업다각화를 활발하게 준비해 왔다.

그러나 점포 개설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 한 관계자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9월경 첫 점포가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불황으로 호텔사업이 부진을 보이자 구체적인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아미가·정우, 베이커리 틈새시장 노리

앞서 여러 호텔업체들이 베이커리 사업에 뛰어들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래적인 의미의 베이커리 사업은 아니지만 베이커리 인접 업종에 진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업체들도 있다.

아미가호텔은 지난해 초 별도법인인 주영실업을 설립했다. 주영실업은 쿠키 및 아이스크림 복합점포인 '미세스 휠즈' 운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미세스 휠즈는 지난해 7월 압구정동에 1호점이 개설됐고, 현재 압구정점과 퇴계로점 등 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뉴코아의 반포점, 야탑 명품관, 인천 구월점 등 백화점 매장은 몇 개월만에 철수된 상태다. 이 점포는 미국 미세스 휠즈사에서 쿠키, 브라우니, 머핀 등 3종류의 냉동생지를 수입하고 뉴질랜드 내추럴사에서 아이스크림을 들여와 복합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아미가호텔은 올해 안에 3개의 점포를 추가로 오픈하고 내년부터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 전개할 방침이다. 주영실업 김인환 기획과장은 "아이템 구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임대료가 워낙 높아 점포 개설에 어려움이



아미가호텔의 쿠키 및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미세스 휠즈' 압구정점.

많다"며 "이에 따라 추가로 오픈하는 직영점은 1급 상권에 입점하되 규모를 10평 미만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우호텔도 지난해 초 별도법인인 청우GF를 설립하고 시너몬롤 전문점 사업으로 베이커리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세인트 시너몬' 첫 점포를 개설했고, 현재 강남역, 상계 미도파, 울산 주리원백화점 등 3곳에 매장을 두고 있다.

이 업체는 또 지난 6월 21일 강남역과 강남역 부근 진솔문고에 '홀라밍고 피자 프레즐'이라는 피자·브레첵(영어로 프레즐) 전문점을 오픈했다. 세인트 시너몬과 다른 별도 브랜드인 셈이다. 특히 브레첵이 전문점 형태로 국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브레첵 전문 업체인 로코스와 기술제휴를 맺었고 국산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솔문고점의 경우 피자, 브레첵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아이스크림, 스파게티를 추가해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있다. 새롭게 접목한 아이템의 소비자 반응을 살피는 시범점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청우GF 한창해 영업부장은 "미국의 경우, 시너몬롤 전문점보다 오히려 브레첵 전문점이 크게 활성화돼 있다"면서 "아직껏 브레첵에 대한 반응이 썩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 처음 도입된 품목이니 만큼 새로움을 추구하는 소비기호에 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우호텔은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개설 조건은 최소 15평 이상으로 25석의 좌석을 갖출 수 있는 점포로 구상하고 있다.

### “투자비 비해 높은 마진에 매력”

이처럼 호텔업체들이 베이커리 및 베이커리 인접 업종에 뛰어들고 있는 데는 사업다각화가 주된 목적이지만 여기에 이들 업종이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이라는 데 크게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신라호텔 외식사업부 양진곤 대리는 “베이커리가 크게 활성화돼 시장여건이 성숙돼 있고 투자비에 비해 마진이 높아 베이커리사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선호텔, 신라호텔 등 대형 호텔은 각각 신세계(백화점)그룹,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관계로 비교적 수월하게 계열 할인점(E마트, 홈플러스)에 점포를 개설하고 있지만 중소 호텔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아미가호텔과 청우호텔은 주요 상권에 직영점을 개설해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유통점에 입점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고 독립 점포로 개설할 경우 1급 상권의 임대료가 너무 높아 점포 개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한다. 요즘과 같은 경기불황 시기에 고비용을 감수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미가호텔의 주영실업은 올초 직영점 개설 목표를 5개에서 3개로 하향 조정했고 청우호텔의 청우GF도 10개에서 4개로 조정했다.

호텔의 고급 이미지를 베이커리와 같은 대중적 아이템과 어떻게 접목하느냐도 문제다. 이 문제는 대형 호텔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 조선호텔이 할인점에 베이커리 매장을 입점시켰을 때 업계 일각에서는 고급 호텔

의 이미지와 안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할인점의 성격상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베이커리 제품도 할인 판매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싼 만큼 질도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선포텔, 신라호텔 관계자는 할인점 입점이 고급 호텔의 이미지와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 싸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일축한다. 마진폭을 줄여서라도 품질유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호텔의 이미지와 걸맞게 고급 점포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곳은 올림피아호텔이다.

이 업체는 매출액의 5%에 이르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외 브랜드를 들여왔고 첫 점포 개설에 시설비만 약 1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명품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당초 목표를 지향할 방침이다. 해외 고급 베이커리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 여건을 두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의 사업결과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 베이커리시장 판도 변화에 영향 끼칠 듯

이렇듯 일부 호텔업체들의 베이커리 사업 진출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은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이런 호



청우호텔은 세인트시너먼에 이어 지난 6월 피자·브레첵 전문점인 '홀라밍고'를 오픈했다. 림이 타 호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다. 호텔마다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외식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베이커리 사업이 타 외식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용으로 높은 마진을 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베이커리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에 선불리 이 시장에 대거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몇몇 업체에서 베이커리 시장 진출을 위해 시장성을 조사하다 검토 단계에서 신규 진출을 중단한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비록 일부이지만 호텔업체들이 베이커리 시장에 뛰어듦에 따라 베이커리 시장 판도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표〉 호텔업계 베이커리사업(인접업종) 진출 현황

구분 업체명	브랜드명	업종	주관사(부서)	비고
신라호텔	봉마뽕	베이커리	외식사업부	9월 첫 점포 오픈 할인점 '홈플러스'에 속속 입점 예정
아미가호텔	미세스 힐즈	쿠키 및 아이스크림 전문점	주영실업	현재 2개 점포 올해 3개 점포 추가 예정
올림피아호텔	달로와요	베이커리	태왕베이커리	10월 첫 점포 오픈 2000년까지 직영 5개 목표
조선포텔	데이 앤 데이	베이커리	외식지원팀	현재 2개 점포. 올 11월경 E마트 인천점에 3호점 입점 예정
청우호텔	세인트시너먼	시너먼롤 전문점	청우GF	현재 3개 점포
	홀라밍고	피자, 브레첵 전문점	청우GF	현재 2개 점포